

전남광주특별시, 19일 여수서 ‘다(多)온(ONE) 페스타’



2026전남광주특별시민 다온페스타 포스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800여 명 참여

세계명절문화 체험·문화예술 공연으로 화합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오는 19일 여수 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2026 전남광주 다(多)온(ONE) 페스타’를 개최한다.

행사는 전남광주 통합의 의미를 살려 ‘전남과 광주가 하나로, 대한민국과 세계가 하나로’라는 의미를 담아 글로벌 시민 공동체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다문화가족을 비롯한 특별시민 등 8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와 연계해 다온페스타와 섬박람회를 함께 즐기도록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섬박람회 주행사장과 여수엑스포를 오가는 셔틀버스 4대가 하루 36회 운행되며, 다온페스타 행사장에는 섬박람회 홍보 부스가 운영된다.

행사는 식전공연, 기념식, 문화예술경연대회, 체험·홍보부스 운영 등으로 구성된다. 기념식에선 다문화가족 지원 유공자 표창이 진행된

다. 7월 1일 통합 이후 국적을 취득한 시민과 외국인 유학생 등 5명에게 ‘전남광주 특별시민증’을 전달하고, 다양한 배경의 시민이 하나의 특별시민으로 함께한다는 의미를 담은 퍼포먼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2부 행사에선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 등 9개 시군 대표팀이 참가하는 문화예술경연대회가 열린다. 방송댄스와 각국 전통춤, 케이팝(K-POP) 댄스, 난타공연 등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선보인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한국·베트남·중국·필리핀·캄보디아 등 5개관으로 구성된 세계명절문화관에서 각국의 명절 문화를 소개하고 전통의상·전통놀이를 체험할 수 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주관으로 인구페스티벌 사진전, 임신체험복 착용 체험, 신생아 돌보기 체험 등을 진행한다. 외국인 안심병원 부스에선 건강검진·진료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밖에 가족문화관, 육아문

화관 등 총 30개 홍보 부스를 운영한다.

황기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부시장은 “추석을 앞두고 다문화가족이 이번 다온페스타에서 서로의 명절 문화를 이해하고 고향의 정취도 느끼길 바란다”며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이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소통하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유대감을 다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다양한 국가의 전통문화와 공연을 한자리에서 접하며 시민들이 문화적 다양성의 가치를 이해하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문화·복지·의료 등 다양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유빈 기자

현대자동차, 중증 장애아동 위한 특수 유모차 지원

현대자동차가 중증 장애아동의 이동권 보장과 일상 접근성 확대를 위해 맞춤형 특수 유모차 지원에 나선다.

현대차는 14일(월)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중증 장애아동과 가족을 초청해 환아 가정 대상 ‘산책’ 행사를 개최하고, 국내 중증 장애아동 500명에게 맞춤형 특수 유모차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행사에는 현대차 국내사업본부 윤효준 본부장과 국내지원사업부

장 김은희 상무, 국내사업지원실 김경조 상무, 밀알복지재단 황대벽 총괄본부장과 조성결 실장, 유모차 전문기업 와이업(WHY-UP)의 도홍구 대표이사를 비롯해 중증 장애아동을 둔 가족 40가정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환아 가정 대상 ‘산책’ 행사는 현대차가 추진하는 특수 유모차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열렸다. 이번 사업은 신체적 특성상 일반 유모차나 휠체어를 사용하기 어렵고

의료장비 적재가 필요한 중증 장애아동의 이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반 유모차는 시트 크기 및 적재 하중, 의료기기 거치 공간 등에 제약이 있어 누운 자세로 이동하거나 의료장비를 함께 사용해야 하는 중증 장애아동이 병원 진료와 일상 외출을 이어가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유모차형 휠체어 등 기존 보조기

성으로 중증 장애아동을 둔 가정의 이용 부담이 큰 상황이다.

현대차는 이러한 문제에 공감해 국내 유모차 전문기업 와이업(WHY-UP), 밀알복지재단과 협력해 특수 유모차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현대차는 특수 유모차 500대 제작 및 생산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밀알복지재단은 수혜자 모집과 선정, 사업 운영을 맡고 와이업은 유모차 설계·개발·생산을 담당한다. 이번에 지원하

는 특수 유모차는 중증 장애아동의 신체 조건과 의료적 필요를 고려해 제작됐다. 일반 유모차와 비교해 시트 면적을 약 50% 넓힌 50×110cm 크기의 시트를 적용했으며, 최대 30kg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프레임도 보강했다.

한편 현대차는 모빌리티 특성을 살린 사회공헌을 확대하며 특수 유모차 지원, 해외 재능기부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유빈 기자

